곡성 '주거·일자리·교육·치유' 하나의 생활권으로

오곡면 '돌아오지촌' 중심 복합빌리지 운영

주거 지원 탈피…자생적 정주 생태계 구축

기존자원 통합 '공간융합 혁신 모델' 선봬

郡 "평생 살고싶은 지역으로 탈바꿈시킬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주거와 일자리, 문화 교육, 치유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엮어낸 미래형 농촌 정주 모델을 새롭게 선보이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청사진을 제시한다.

2일 곡성군에 따르면 단순히 살 집만 제공하던 기존의 1차원적인 정주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에서 일하고 배우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는 '곡성형 라이프융합 복합빌리지'를 조성하고 있다.

일할 기회와 배움의 즐거움, 쾌적한 일상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실질적인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변화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핵심 거점은 오곡면 소재 '곡성, 돌아오지촌'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2022년부터 단독주택 21동 규모로 조성한 이곳은 청년과 가족 단위 이주민의 체류와 정착을 돕는 베이스캠프다.

현재 청춘형 9세대, 가족형 14세대 등 총 53명이 입주해 새로운 삶을 꾸리고 있다. 군은 이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연결해 하나의 자생적인 정주 생태계를 구축했다.

우선 '목공예 창작공방'은 복합문화공간인 '곡성스테이션 1928'에 자리 잡아 주민과 이주민에게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취업과 창업을 돕는 '일하잡센터' 역시 곡성스테이션 1928로 이전을 추진, 곡성을 찾은 청년들이 새로운 경제 활동 기회를 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디톡스테라피 치유센터'를 연계해 도시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웰니스 거점 기능까지 더했다.

특히 이 모델은 기존에 조성된 자원을 모아 개별 운영되던 시설들을 프로그램과 서비스 중심으로 엮어내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는 대신,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 융합형 지역혁신 모델'을 제시,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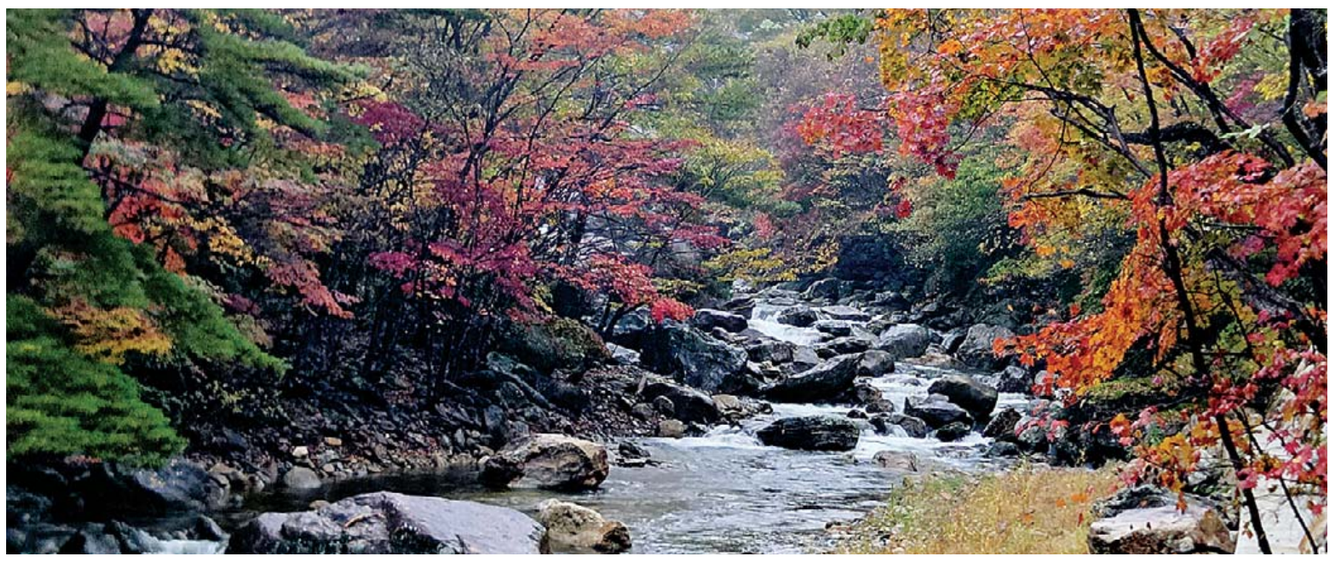
군은 관광을 위해 곡성을 찾은 이들이 일정 기간 머물고, 지역에서 일과 배움의 기회를 발견하며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방문-체류-관계 형성-정착'의 선순환 구조 완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거주 인구 확보에만 매몰된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활 인구와 관계 인구를 적극 확장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새로 유입된 귀촌인 뿐만 아니라, 기존 원주민들 역시 수준 높은 문화·치유·일자리 서비스를 함께 누리게 돼 공동체 자생력과 주민 삶의 질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형 라이프융합 복합빌리지는 농촌을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는 매력적인 거점으로 전환하려는 선도적인 시도"라며 "잠시 머무는 곡성에서 평생 살고 싶은 곡성으로 탈바꿈시켜 인구 감소라는 농촌의 위기를 새로운 공간 혁신 기회로 반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구례군이 오는 7일부터 이틀간 토지면 지리산 피아골단풍공원 일원에서 '제50회 지리산피아골 단풍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단풍으로 붉게 물든 피아골 전경. 〈구례군 제공〉

"구례 지리산피아골 단풍축제로 오세요"

7-8일 단풍제례·가을 보물찾기 등 다채

연곡사 국화 전시…4㎞ 산책 코스 추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가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오색 단풍의 비경과 천년고찰의 국화 향기를 융합한 '지리산피아골 단풍축제'를 선보인다.

2일 구례군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토지면 지리산 피아골단풍공원 일원에서 '제50회 지리산피아골 단풍축제'를 연다.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피아골의 붉은 단풍 절경과 천년고찰 연곡사의 가을 국화 전시가 한자리에서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입체적인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로 반세기를 맞은 단풍축제는 단풍제례를 비롯해 사생대회, 가을 보물찾기, 청년 장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특히 군은 관광객들을 위해 연곡사에서 직전마을로 이어지는 약 4㎞ 구간의 완만한 데크길을 핵심 걷기 코스로 추천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계곡 주변의 단풍과 국화 향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동선을 배려했다.

또한 깊은 산속의 고즈넉함을 원하는 산행객을 위해 직전마을에서 표고막터를 거쳐 삼홍소로 이어지는 숲길도 빼놓을 수 없는 코스다.

현재 산 정상부에서 시작된 단풍이 점차 계곡 아래로 확산하고 있어 행사 기간에는 산과 물, 사람까지 붉게 물든다는 피아골 '삼홍(三紅)'의 비경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주요 구간의 단풍 진행률이 40-6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대규모 관광객 맞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많은 방문객이 연곡사 국화 전시와 피아골 단풍길을 함께 둘러보며 구례 만의 특별한 가을 추억을 가득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순천시, '온품' 공모전 우수제안 5건 시상

특이·반복 민원 대응 체계 개선 목적

조직 차원 책임 공유 '공동대응' 금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는 2일 "특이·반복 민원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온품(ON-POOM)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제안 5건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실제 민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질적인 특이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8월 접수된 총 33건의 제안 중 심사를 거쳐 금·은·동상 각 1건과 장려상 2건을 최종 선정했다.

금상의 영예는 '온품 공동대응 및 성과보상제운영'에 돌아갔다. 악성 민원 종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팀 단위 공동 대응, 피해 직원 1대1 멘토 지정 등을 제안해 개인의 부담을 조직 전체가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전담 관리 체계 구축과 스토킹 전화 차단 등을 제안한 '특이민원 관리체계 구축'이 은상을, AI 민원 답변 시스템과 동행 책임제를 담은 '순천 민원 3안(安)'이 동상을 각각 차지했다.

시는 선정된 우수 제안들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민원 대응 매뉴얼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순천=백상현 기자

담양군,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총력

11월 군정 소통의 날 정책 방향 공유

기존 문화시설 활용 상권 활성화 주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은 2일 군청 면앙정실에서 공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군정 소통의 날을 열고 민선 9기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사진〉

박종원 군수는 지난 10월 담양 청년축제와 창평 전통음식축제, 생활체육대축전, 세계문화페스티벌 등 주요 행사 운영과 방문객 안전관리에 힘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민선 9기 핵심 군정 방침인 '격이 빛나는 문화관광'을 중심으로 담양의 관광 경쟁력 제고 방안을 중점 설명했다.

특히 다미담예술구와 담양 상설시장, 해동문화예술촌, 담빛음악당 등 기존 문화·관광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해 상권 활성화로 철저히 이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 참여자 표창과 공직자 국외 산업시찰 결과 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원 결의대회도 함께 진행됐다.

박종원 담양군수는 "관광은 단순 방문객 수보다 지역에 머무는 시간과 상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훨씬 중요하다"며 "담양 만의 매력을 알려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돌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성, 주민 밀착 고향사랑 기금사업 4건 확정

간식·생필품 배달·야구 스토브리그 등

'조정 꿈나무 지원' 내년까지 1년 연장

김한종 군수 "주민 체감 사업으로 연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내년 고향사랑기금으로 추진할 4개 핵심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2일 장성군에 따르면 2027년 고향사랑 기금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간식비 지원 ▲어르신 소파 지원 ▲생필품 배후마을 전달 서비스 ▲유소년 야구 스토브리그 개최 등 총 4건이 선정됐다.

우선 아동과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로 정부의 별도 간식비가 없는 다함께돌봄센터 3곳에 간식비를 지원해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관절 약화 등으로 바닥에 앉고 일어서는 데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경로당 등 노인 시설 100곳에 입식 소파를 보급할 계획이다.

주민 생활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나 마트가 없어 생필품 구입이 어려운 외곽 배후마을을 주민들을 위한 이동 차량을 활용해 물품을 주문·배달하는 '생필품 전달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장성호 생활체육공원 야구장을 무대로 전국 단위 '유소년 야구 스토브리그'를 개최해 선수단 체류를 통한 경제 소비 활성화를 적극 도모한다.

앞서 군은 지난 7월 대국민 공모와 부서 제안을 통해 26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과 10월 군민·기부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 지정 기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조정 꿈나무 경기정 지원'은 목표액인 1억7천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모금 기간을 2027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은 모금된 기금을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으로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선정된 기금 사업들이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유·초등 교감단 'AI·외국어' 교육 역량 강화

전남광주교육청 국제교육원 직무 연수

AI 이해 통한 미래교육 리더십 초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국제교육원은 2일 "최근 원내 대회의실 등에서 유·초·중등 교감 23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학교관리자 외국어 및 국제교육이해 직무연수 2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직무연수는 거시적인 국제 정세 파악에 집중했던 1기(교장 대상)와 달리, 인공지능(AI) 시대에 외국어 교육 리더십 강화를 위해 실무 중심의 'AI 이해를 통한 미래교육 리더십' 함양에 초점을 맞췄다.

참석자들은 'AI 미래교육과 외국어교육' 특강을 통해 최신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교육 환경 변화상을 짚어보고 이를 실제 학교 경영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영미, 일본, 중국어 등 언어권별 소규모 맞춤형 분반 수업도 진행됐다. 교감들은 원어민 강사와 소통하며 실전 회화 역량을 다지고 학교급별 분반 토의를 거쳐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를 모색했다.

조현경 국제교육원장은 "학교 관리자들이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연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광양시,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 체계 구축

게시대 119곳·간판 5천여건 데이터화

불법현수막 자동 경고·안전검사 도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옥외광고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119곳과 옥외간판 5천497건을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된 탓에 시설물 이용 실적과 수수료 정산, 안전도 검사 등을 통합 관리할 행정망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설물별 관리 카드를 일제 정비해 신설·개보수 이력과 수수료 정산 내역, 경관위원회 심의 이력 등을 데이터화할 계획이다.

주말과 휴일에 기승을 부리는 불법 현수막 단속도 강화한다. 지난달 '광고 번호 차단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AWCS)'을 구축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갖췄다. 더불어 새올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시설물 안전도 검사 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파악하고 검사 누락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광양=백상현 기자